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도자료	보다 나은 정부

2019년 2월 27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2.26(화) 12:00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9. 2. 27.(수)	담당부서	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 기획재정부 혁신창업팀 환경부 대기환경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해양수산부 미래전략팀
담당과장	김봉석 팀장(044-203-5394) 김민표 과장(02-2110-2380) 심현우 과장(044-215-4640) 박륜민 과장(044-201-6880) 이상주 과장(044-201-3238) 노재옥 팀장(044-200-5215)	담 당 자	박성수 사무관(044-203-5398) 이승원 사무관(044-203-5395) 손효진 사무관(02-2110-2758) 장준희 사무관(044-215-4573) 함지범 사무관(044-201-6884) 안세희 사무관(044-201-3720) 이인자 사무관(044-200-5216)

수소경제, 중장기 연구개발 밑그림 그린다

- 정부,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착수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성윤모)와 과기정통부, 기재부, 환경부, 국토부, 해수부 등 6개 부처는 **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상세 기술로드맵 수립에 착수**한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기술로드맵은 **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산·학·연 전문가 약 100여명이 참여**할 예정이며,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**올해 안에 「수소 기술개발 로드맵」 수립을 완료**할 계획이다.

□ 정부는 지난 달 **「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」**을 통해, 국내외 수소산업 전반을 진단하고 **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**하였으며,

○ 전 세계적으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**수소경제 선점**을 위해서는 **'기술혁신'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진단**한 바 있다.

□ **국내 수소에너지 기술 수준은 지난 십수 년간의 연구개발**을 통해 **지속적으로 향상**되어 왔으나, 선진국과 비교할 때 **여전히 기술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**받고 있다.

※ 수소에너지 분야 국내 기술수준 : 최고기술국(미국) 대비 77.7%('16)

○ 특히, 활용 분야에 비해 기술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는 **수소 생산, 저장·운송 분야**는, **기존 기술 고도화**를 통한 기술적 한계 극복과 동시에 **다양한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기술을 발굴·적용**해야 하며,

○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**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활용 분야**는 **다양한 수요처로 지평을 확대**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하고,

○ **수소에너지 전 주기 기술개발**에 있어서는 **안전성과 환경적인 영향에 대한 검토**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.

□ 이에 **산업부를 비롯한 6개 부처**는 기술로드맵 수립 방향 논의를 통해 수소에너지 기술을 크게 **❶생산, ❷저장·운송, ❸활용**(수송), **❹활용**(발전·산업), **❺안전·환경·인프라 등 5개 분야로 분류**하였으며, 100여명의 산·학·연 전문가들과 함께 **기술로드맵 수립에 본격 착수**하기로 하였다.

○ 우선, 각 분야별로 기술을 세분화하여 **기술분류체계를 마련**하고 **세부 기술별로 기술 진단 및 특허 분석 등을 실시**할 계획이며,

○ **국내·외 동향** 등을 면밀히 살펴본 후 **단기·중기·장기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추진계획을 도출**하고,

○ **기술개발 장애요인을 분석**하여 **개발된 기술을 조속히 현장에 적용**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
□ 이에 따라 **3월부터 기술분류체계 마련 및 세부기술별 기술 진단 등을 시작**으로 **기술로드맵 수립이 본격적으로 추진**될 예정이며,

○ 올해 하반기에 **기술로드맵 수립이 완료**되면, 이를 토대로 **기술개발이 필요한 중점투자분야를 도출** 및 **부처 간 연계, 역할분담을 통해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**이다.

□ 산업부는 이번에 수립되는 **「수소 기술개발 로드맵」**이 수소의 생산, 저장·운송, 활용 등 **수소산업 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청사진이 될 것**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,

○ 향후에도 지난 1월 발표한 **「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」의 차질없는 이행**을 위해 **다양한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**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과 김봉석 팀장(☎ 044-203-5394), 박성수 사무관(☎ 044-203-5398), 이승원 사무관(☎ 044-203-5395)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손효진 사무관(☎ 02-2110-275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